



《黃帝內經》의 精神觀

I. 서론	2
II. 精神과 陰陽	3
III. 精神과 五行	6
IV. 結論	9

《黃帝內經》의 精神觀

경희대학교 원전교실
정창현

1. 서론

서양의 물질문명과 자연과학의 발달로 물질 세계나 현상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정신세계에 대한 연구가 소홀히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인간의 정신방면에 대한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이 역시 물질적인 자연과학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결과라는 점에서 볼 때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의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서양의학은 최근에 와서 정신적 요인이 질병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흐름은 결국 심신의학(psychosomatics)이라는 서양의학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냈다. 한의학에서는 이미 《黃帝內經》(이하 內經이라 簡稱함)에서 질병의 예방과 질병의 발생, 진단, 치료에 있어서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內經》에서는 정신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요소이자 생명활동을 주재하는 주체로서 또한 의식사유활동의 주체로서 인간에게 없어서 안될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神을 얻은 사람은 살고 神을 잃은 사람은 죽는다(得神者生, 失神者死)”라는 말은 神을 중시하는 《內經》의 사상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¹⁾

《內經》은 인간이 陰陽五行의 법칙에 따라 생명을 영위한다고 보았다. 즉 《素問·生氣通天論》에서는 “무릇 예로부터 하늘의 이치에 통한 사람은 생명의 뿌리를 陰陽에 근본하였다.”²⁾ 이라고 하여, 인체 생명활동의 근본이 陰陽運動에 있다고 인식했다. 그리고 《素問·四氣調神大論》에서는 “무릇 四時와 陰陽은 만물의 근본이다. 그래서 성인께서는 봄과 여름에는 陽을 기르시고, 가을과 겨울에는 陰을 기르셔서 그

1) 拙稿, 神에 대한 研究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1997.2.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

2) “夫自古通天者, 生之本, 本於陰陽.”

근본을 따르셨으니, …… 그러므로 陰陽과 四時는 만물의 처음이자 끝이며 만물이 죽고 사는 근본이 됩니다. 이를 거스르면 재해가 생기고 이를 따르면 혹독하고 사나운 병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를 일러 道를 얻었다고 합니다.”³⁾라고 하여, 四時陰陽의 운동이 만물의 근본이며 死生の 근본이므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四時的 陰陽變化에 순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素問·陰陽應象大論》 “陰陽은 하늘과 땅의 도리요 만물의 버리며 변화의 부모이며 낳고 죽이는 근본과 시작이며 神明의 곳집이니,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근본에서 구해야 합니다.”⁴⁾이라 하여, 陰陽이 天地自然의 법도이며, 만물의 버리며, 생명이 죽고 사는 바탕이 되므로 질병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근본인 陰陽에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구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內經》은 五行理論을 바탕으로 인간을 포함한 우주만물을 하나의 계통으로 체계화함으로써, 天人相應理論의 근간으로 삼았다. 이는 《素問·金匱真言論》, 《素問·陰陽應象大論》, 《素問·五運行大論》, 《素問·五常政大論》, 《素問·宣明五氣》 등 여러 편에서 나타난다.⁵⁾

《內經》의 정신관이 갖는 특징은 바로 이와 같은 陰陽五行論을 인간의 정신영역에 까지 적용하여, 인간의 정신을 분석하고 이를 의학에 응용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內經》에 나타나는 독특한 정신관 즉 陰陽五行

論의 精神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⁶⁾ 여기서는 논의의 대상을 인간의 정신작용 중 五神(魂神意魄志), 五志(怒喜思憂恐), 睡眠활동, 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精神과 陰陽

《內經》에서는 天地自然의 변화가 모두 陰陽運動에 起因한 것이며, 그러한 天地自然의 陰陽運動은 神明에 의해 주재된다고 생각하였다. 예컨대, 《素問·脈要精微論》에서 “天地의 變化에는 陰陽이 應한다.”⁷⁾이라고 하여, 天地의 變化가 陰陽運動에 의한 것이라 하였고,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天地의 움직임과 고요함은 神明이 그 버리가 된다.”⁸⁾라고 하여, 神明을 天地自然이 運動變化하는 氣운으로 인식하였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陰陽은 하늘과 땅의 도리요 만물의 버리며 변화의 부모이며 낳고 죽이는 근본과 시작이며 神明의 곳집이다.”⁹⁾라고 하여, 陰陽의 對立과 統一이 우주자연의 일체 만물이 운동하고 변화하는 근원이며, 神明이 그 안에 깃들어 있어 이러한 陰陽運動을 주재한다고 하였다.

《內經》은 天地自然의 운동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활동도 陰陽運動을 근본으로 한다고 인식하였다. 《素問·寶命全形論》에서 “사람이

6) 《內經》에 보이는 神의 의미, 작용, 분류 등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拙稿 “神에 대한 研究”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7) “天地之變, 陰陽之應”

8) “天地之動靜, 神明爲之綱紀”

9)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

3) “夫四時陰陽者, 萬物之根本也. 所以聖人春夏養陽, 秋冬養陰, 以從其根, …… 故陰陽四時者, 萬物之終始也, 死生之本也. 逆之則災害生, 從之則苛疾不起, 是謂得道.”

4)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 治病必求於本.”

5) 拙稿, “神에 대한 研究” pp. 18

태어나서 형체를 됨에 陰陽을 벗어나지 않는다.¹⁰⁾라고 한 것이나, <素問·生氣通天論>에서 “무릇 예로부터 하늘의 이치에 통한 사람은 생명의 뿌리를 陰陽에 근본하였다.”¹¹⁾라고 한 것은 곧 사람의 생명활동이 陰陽을 벗어나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內經>이 “形與神具”라 하여 인간을 정신과 육체의 合一體로 본 것도 역시 陰陽에 근거하여 인간을 정신과 육체로 구분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작용 역시 陰陽運動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素問·至眞要大論>에서는 “天地의 대법도에 사람의 정신이 통하여 應한다.”¹²⁾라고 하였는데, 이는 곧 天地自然의 큰 법도인 陰陽에 인간의 정신이 통하여 응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정신을 陰陽의 법칙에 따라 살펴보면, 精과 神이 합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精은 陰이며 神은 陽으로, 精은 神의 물질적 바탕이 되며, 神은 精에 의존하여 정신활동과 생명활동을 주재한다. 陰陽이 각각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듯이 精과 神 또한 상호의존하여 서로 합일되어야만 그 기능을 발현할 수 있다. 예컨대, “精을 쌓아 神을 온전하게 한다.”¹³⁾, “精이 무너지고 神이 떠나간다.”¹⁴⁾, “精氣가 늘어지고 무너져서 營氣가 엉키고 衛氣가 사라지는 까닭으로 神이 떠나버려서 병이 낫지 않는다.”¹⁵⁾라고 한 것 등은 모두 정신이 精과 神의 합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한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精神은 인체의 水火陰陽의 대립과 통

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精은 腎에 갈무리되어 있고, 神은 心에 갈무리되어 있다. 또 腎은 水에 속하는 藏이며, 心은 火에 속하는 藏이다. 인체는 이러한 心과 腎의 끊임없는 水火升降運動에 의해 생명활동을 영위하게 되는데, 이 생명활동이 바로 정신의 발현인 것이다.

정신작용의 일종인 魂魄에 대해서도 <內經>은 정신과 마찬가지로 陰陽運動에 근거하여 발현된다고 인식했다. 즉, <靈樞·本神>에서 “神을 따라 가고 오는 것을 魂이라 하고, 精을 따라 들고 나는 것을 魄이라 한다.”¹⁶⁾라고 하였는데, 이는 魂과 魄이 精과 神의 陰陽運動을 따라 往來出入하는 것이라 하였다. 결국 精과 神의 陰陽運動이 외부로 발현된 것이 魂魄이라는 말이다.

이에 대해 張介賓이 <類經·藏象類>에서 “精을 神에 대비하여 말한다면 神은 陽이 되고 精은 陰이 된다. 魄을 魂에 대비하여 말한다면 魂은 陽이 되고 魄은 陰이 된다.”¹⁷⁾라고 하였고, 또 “神이 陽中の 陽이라면 魂은 陽中の 陰이며, 精이 陰中の 陰이라면 魄은 곧 陰中の 陽이다.”¹⁸⁾라고 하여, 神과 魂이 모두 陽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도 神은 陽中の 陽이고 魂은 陽中の 陰이며, 精과 魄이 모두 陰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도 精은 陰中の 陰이고 魄은 陰中の 陽이라고 했다. 또 그는 “神이 의미하는 바는 두가지가 있으니, 구분하여 말한다면 陽神을 魂이라 하고

10) “人生有形，不離陰陽”

11) “夫自古通天者，生之本，本於陰陽。”

12) “天地之大紀，人神之通應也”

13) “積精全神” <素問·上古天真論>

14) “精壞神去” <素問·湯液醪醴論>

15) “精氣弛壞，營泣衛除，故神去之而病不愈也。” <素問·湯液醪醴論>

16) “隨神往來者謂之魂，並精而出入者謂之魄”

17) 張介賓，類經，大星文化社，1986，pp. 56

“精對神而言，則神爲陽而精爲陰，魄對魂而言，則魂爲陽而魄爲陰”

18) 앞의 책，pp. 56

“神爲陽中之陽而魂則陽中之陰也，精爲陰中之陰而魄則陰中之陽者乎”

陰神을 魄이라고 한다.”¹⁹⁾이라고 하여, 魂과 魄은 모두 神의 일종인데, 魄은 陰神이며 魂은 陽神이라고 했다. 즉 魂魄을 神이 발현될 때의 陰적인 속성과 陽적인 속성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외에도 張介賓은 여러사람의 말을 인용하였는데, 孔穎達은 形의 靈이 魄이고 氣의 神이 魂이라²⁰⁾ 하였으며, 樂祁는 精의 神이 魄이고 氣의 神이 魂이라고²¹⁾ 하였으며, 또 邵雍은 “魂은 氣를 따라서 變하며, 魄은 形을 따라서 化한다”²²⁾라고 하였고, 朱子는 “魂은 陽이고 魄은 陰이며, 魂은 움직이고 魄은 고요하다.”²³⁾라고 하였다. 모두가 魂魄을 정신의 발현으로 인식하였으며, 또 精神과 魂魄이 모두 陰陽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內經》에서는 인간의 정신이 이처럼 陰陽의 법칙에 따라 운동하므로, 그 생리나 병리현상 또한 陰陽의 법칙에 따라 나타난다고 보았다. 예컨대, 《素問·調經論》에서 “음양이 평형을 이루어 치우침이 없어서 그 형체를 채우고 九候가 한결같으면 이름하여 平人이라고 한다.”²⁴⁾라고 하고, 《素問·生氣通天論》에서 “陰과 陽이 서로 떨어져면 精氣가 곧 끊어진다.”²⁵⁾라고 하여, 陰陽의 상호 균형의 여부를 생리와 병

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素問·至眞要大論》에서도 “무릇 陰陽의 기운이 맑고 고요하면 생명활동이 잘 이루어지지만 요동하면 혹독한 질병이 일어난다.”²⁶⁾라고 하여, 陰陽이 상호 조화를 이루면 인체의 생명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만일 조화가 깨져 혼란해지면 질병이 곧바로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이는 정신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素問·生氣通天論》에서 “陰이 안에서 和平하고 陽이 밖에서 固密하여야 정신이 비로소 다스려진다.”²⁷⁾라고 하였고, 또 “陰이 陽을 이기지 못하면 맥의 흐름이 급박하고 빨라서 陽이 陰을 併呑하여 이에 狂證이 발생한다.”²⁸⁾이라고 하였다. 즉 정신 또한 陰陽의 평형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온전할 수 있다는 말이다.

《內經》은 인간의 감정에도 이러한 陰陽의 이치가 통한다고 인식하였는데, 특히 七情 중에서 喜와 怒를 들어 陰陽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즉 《內經》은 “陽氣가 많은 사람은 잘 기뻐하고, 陰氣가 많은 사람은 잘 성낸다.”²⁹⁾라고 하여,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뻐하는 감정은 陽에 속하고 분노하는 감정은 陰에 속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그야말로 인간의 감정을 陰氣와 陽氣의 속성에 연관시켜 해석한 것이다. 즉 분노는 침체되고 억압된 것으로부터 나오는 감정으로 陰氣의 下降하고 收斂하는 속성과 같고, 기쁨은 상승되고 通暢하는 기운으로 陽氣의 발산하고 상승하는 속성과 같은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張介賓도 “빛나고 밝으며 맑고 깨끗한 것은 陽의 특성이며, 가라앉고 막으며 누르고 쌓이는

19) 앞의 책, pp. 65

“惟是神之爲義有二. 分言之則陽神曰魂, 陰神曰魄”

20) “人之生也始變化爲形, 形之靈曰魄, 魄內自有陽氣, 氣之神曰魂. 魂魄, 神靈之名, 初生時耳目心識手足運動, 此魄之靈也. 及其精神性識漸有知覺, 此則氣之神也.”(앞의 책, pp. 64)

21) “心之精爽是謂魂魄, 魄屬形體, 魂屬精神. 精又是魄, 魄是精之神. 神又是魂, 魂是氣之神.”(앞의 책, pp. 65)

22) 앞의 책, pp. 65

“魂隨氣而變, 魄隨形而化”

23) 앞의 책, pp. 65

“魂陽而魄陰, 魂動而魄靜”

24) “陰陽均平, 以充其形, 九候若一, 命曰平人”

25) “陰陽離決, 精氣乃絕”

26) “夫陰陽之氣, 清靜則生化治, 動則苛疾起”

27) “陰平陽秘, 精神乃治”

28) “陰不勝其陽, 則脈流薄疾, 并乃狂”

29) “多陽者, 多喜, 多陰者, 多怒”《靈樞·行鍼》

것은 陰의 성질이다. 그러므로 陽氣가 많으면 잘 기뻐하고 陰氣가 많으면 성을 잘 낸다.”³⁰⁾라고 하였다. <內經>의 이러한 七情의 陰陽論의 인식은 병리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暴怒傷陰, 暴喜傷陽”³¹⁾이라고 하여,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것은 인체의 陰을 손상시키고, 지나치게 기뻐하는 것은 인체의 陽을 손상시킨다고 했다.³²⁾

<內經>은 또 睡眠과 꿈에 대해서도 陰陽論 바탕으로 그 機轉을 설명하였다. <靈樞·口問>에서 “陽氣가 다하고 陰氣가 盛하여지면 눈이 감기고, 陰氣가 다하고 陽氣가 盛하여지면 잠에서 깨어난다.”³³⁾라고 하고, 또 <靈樞·大惑論>에서도 “무릇 衛氣가 낮에는 항상 陽에서 行하고 밤에는 陰에서 行하기 때문에, 陽氣가 다하면 잠들고 陰氣가 다하면 잠에서 깨어난다.”³⁴⁾라고 하여, 睡眠의 기전을 陰氣와 陽氣의 進退消長으로 설명하였다. 즉 밤에 잠자는 것은 衛氣가 陰分으로 들어가 陽氣가 虛해지고 陰氣가 盛해지기 때문이며, 잠에서 깨는 것은 衛氣가 다시 陽分으로 나와 陽氣가 盛해지고 陰氣가 虛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꿈에 대해서도 <內經>은 “陰氣가 왕성하면 큰 강을 건너면서 두려워하는 꿈을 꾸고, 陽氣가 왕성하면 큰 불이 나서 활활 타는 꿈을 꾸며, 陰陽이 모두 왕성하면 서로 죽이는 꿈을 꾸며, 上部의 기운이 성하면 나는 꿈을 꾸고, 下部의 기운이 성하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며, 심하게 배가 고프면 얻는 꿈을 꾸며 심하게 배가 부르면 남에게 주는 꿈을 꾸며.”³⁵⁾라고 하여, 마찬가지로 陰陽의 盛衰로 해석하였다. 즉 人體內 陰氣와 陽氣의 盛衰가 꿈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인식한 것이다. 水는 陰에 속하고 火는 陽에 속하므로, 물을 건너는 꿈을 꾸다는 것은 인체의 陰氣가 盛하다는 것이며, 꿈에 큰 불을 보는 것은 인체의 陽氣가 盛하다는 것이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陰陽의 속성에 따라 상응하여 꿈을 꾸거나, 아니면 부족한 것을 보충하거나 남는 것을 덜어내는 등의 형태로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다.

III. 精神과 五行

<內經>에서는 天地自然의 萬物이 運動, 變化하는 것은 모두 五行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고 인식하고, 五行理論을 바탕으로 天地自然의 모든 사물과 그들의 변화까지 계통화하려고 했다. 예컨대, <素問·陰陽應象大論>을 살펴보면, 方位, 五行, 氣候, 季節, 五味, 五藏, 五體, 五官, 五色, 五音, 五聲, 五變, 五志 등 天地自然의 다양한 요소들을 오행의 屬性에 따라 각각

30) 張介賓, 類經, 앞의 책, pp. 456
“光明爽朗, 陽之德也, 沈滯抑鬱, 陰之性也. 故多陽則多喜, 多陰則多怒”

31) <素問·陰陽應象大論>, <素問·疏五過論>
32) 喜와 怒를 陰陽論의 陰陽으로 인식한 것은 <內經> 뿐만 아니라, <淮南子>, <莊子>에서도 보이는데, <淮南子·精神訓>에서는 “人大怒破陰, 大喜墜陽.”(漢文大系 20, 淮南鴻烈解, 卷第七, 精神訓, 富山房發行, 1984, 동경, pp. 17)이라고 하였고, <莊子·在宥>에서는 “人大喜邪, 毗於陽, 大怒邪, 毗於陰”(張其成·李錫浩 譯, <老子·莊子>, 三省出版社, 1987, pp. 276)이라고 하였다.

33) “陽氣盡, 陰氣盛, 則目瞑, 陰氣盡而陽氣盛, 則寤矣.”
34) “夫衛氣者, 晝日常行於陽, 夜行於陰, 故陽氣盡則臥, 陰氣盡則寤.”

35) “陰氣盛, 則夢涉大水而恐懼, 陽氣盛, 則夢大火而燔灼, 陰陽俱盛, 則夢相殺, 上盛則夢飛, 下盛則夢墜, 甚飢則夢取, 甚飽則夢予.” <靈樞·淫邪發夢>

배속해 놓고 있다.³⁶⁾

인간의 精神도 예외는 아니어서, <素問·宣明五氣>에서 “心藏神, 肺藏魄, 肝藏魂, 脾藏意, 腎藏志”라고 하여, 인간의 정신을 다섯가지로 나누고 이를 각각 五藏에 배속하였다. 이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心藏神”이라 한 것은 心이 五藏六府의 우두머리로 藏府의 기능활동을 주관하며, 또 全身의 血脈을 주관하여 모든 인체의 생명활동이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心에 생명의 근원인 神이 깃들어 있다고 한 것이다. 肺는 金에 해당되며, 金은 陰에 속하여 收斂, 包藏하는 성질이 있어서 氣를 모아 形을 이루거나 받아들이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는 魄이 魂에 비해 상대적으로 陰에 속하며 또 形에 붙은 神으로³⁷⁾ 주로 불수의적인 운동이나 본능적인 감각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肺藏魄”이라 한 것이다.³⁸⁾ 肝은 陽에 속하여 발산,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어, 血을 저장하였다가 필요할 때 눈이나, 손, 발 등에

공급하여 움직이게 하는데, 이는 魂이 魄에 비해 상대적으로 陽에 속하며 또 氣에 붙은 神³⁹⁾으로 주로 인체의 눈이나 手足 등의 수의적인 운동기능을 담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肝藏魂”이라고 한 것이다. “脾藏意”는 脾는 土에 속하여, 외부로부터 들어온 水穀의 기운을 인체의 기능활동에 적합한 정미로운 물질로 바꾸어 다른 藏府의 활동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작용을 한다. 意는 <靈樞·本神>에서 “心有所憶謂之意”라고 하였듯이, 일단 心의 작용을 통해 들어온 외부의 정보를 일차로 인식하고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 단계의 사유과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意가 脾에 갈무리되어 있다고 한 것이다. 腎은 水에 속하는데, 水는 沈藏하고 凝縮하는 성질이 강하여 내부에 陽氣를 단단히 갈무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식물의 씨앗처럼 단단하고 뿌리처럼 흔들리지 않는 성질이 있다. 腎도 이러한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아 인체의 精을 갈무리하고 단단히 축적하여, 인체의 骨格을 營養하여 인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그런데 志는 <靈樞·本神>에서 “意之所存謂之志”라고 하였듯이, 意의 작용을 통해 일차로 인식되었던 정보를 깊숙히 쌓아 두는 것, 또는 생각이 확고하게 굳어진 상태를 말한 것이다. 그래서 志가 腎에 갈무리되어 있다고 한 것이다.

<素問·六節藏象論>에서도 “心은 생명의 근본이며 神의 應變을 주관하는 곳이다.”⁴⁰⁾ “肺는 氣의 근본이며 魄이 머무는 곳이다.”⁴¹⁾ “腎은 머물러 침저하여 막아서 갈무리하는 근본이며

36) <素問·陰陽應象大論> 중 南方, 火에 속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南方生熱, 熱生火, 火生苦, 苦生心, 心生血, 血生脾, 心主舌. 其在天爲熱, 在地爲火, 在體爲脈, 在藏爲心, 在色爲赤, 在音爲徵, 在聲爲笑, 在變動爲憂, 在竅爲舌, 在味爲苦, 在志爲喜.”라고 하였다.

37) 孔穎達의 <春秋左氏傳>昭公7年の正義에서 “형체에 붙은 靈을 魄이라 하였고, 기에 붙은 신을 魂이라 한다.”고 하였다. (가노우 요시미츠 지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기철학분과 옮김, <중국의학과 철학>, 여강출판사, 1992, pp. 213 재인용)

38) <內經>에서 汗문을 魄門이라고 한 것이나, 汗을 魄汗이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변이나 汗은 생명활동으로 생긴 찌꺼기에 해당하며 이것은 모두 형체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內經>에서는 魄을 유형의 찌꺼기와 연관된 것이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인체의 五藏 중에서는 폐가 정기를 수렴하고 찌꺼기를 버리는 작용을 하는데, 이 점에서 肺와 魄은 유사한 면이 있다.

39) 주37)과 같음.

40) “心者, 生之本, 神之變也”

41) “肺者, 氣之本, 魄之處也”

精이 머무는 곳이다.”⁴²⁾, “肝은 極을 풀어 펼치는 근본으며 魂이 거처하는 곳이다.”⁴³⁾, “脾, 胃, 大腸, 小腸, 三焦, 膀胱은 가두어 담아두는 곳이며 營함이 머무는 곳이니, 이름을 器라 하고, 능히 糟粕을 소화하여 味로 바꾸어 들이고 내는 것이다.”⁴⁴⁾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앞에서 말한 내용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素問·宣明五氣>의 내용이 五神에 대한 총괄적인 개괄이라면, <素問·六節藏象論>의 내용은 五神이 인체의 생리적 기능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좀더 접근한 것이다. 즉 神은 心에 위치하여 인체 생명활동의 근본이 되며, 魄은 肺에 거처하여 體內氣의 宣發, 肅降을 담당하며, 魂은 肝에 거처하여 인체의 운동을 주관한다. 腎과 脾의 경우, <素問·宣明五氣>와 다르게 精과 營을 배속하였는데, 이는 이들이 다른 장부의 생리기능활동의 근본이 되는 先天의 精과 後天의 精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素問·六節藏象論>의 내용이 <素問·宣明五氣>에 비해 생리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한 것이다.

<內經>에서는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도 또한 五行論의으로 인식하였는데,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사람은 五藏을 두어 五氣를 탈바꿈 기쁨, 분노, 슬픔, 근심, 공포를 만듭니다.”⁴⁵⁾라고 하여, 기쁨, 분노, 슬픔, 근심, 공포 등의 다섯가지 감정(五志)이 五藏으로부터 발현된 기운이라고 했다. 그리고 五藏과 五志를 직접 연관시켜 놓았는데, 분노는 肝氣가 발현된 것이며, 기쁨은 心氣가, 생각은 脾氣가, 근심은 肺氣가,

두려움은 腎氣가 각각 발현된 것이라고 했다. 분노는 억눌렸던 감정이 밀바닥부터 위로 치밀어 올라오는 심리상태를 말한 것인데, 이는 겨우내 억눌렸던 기운이 봄이 되어 움트는 것과 같으므로, 五行屬性上 木에 해당된다. 또 기쁨은 火가 기운을 발산하는 것처럼 사방으로 넓게 퍼지는 상이므로 心氣의 발현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생각은 이리 저리 이 궁리 저 궁리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하여 가닥을 세우는 것이 마치 토가 중앙에 위치하여 나머지 네 기운들의 작용을 적당히 조절하는 것과 같으므로 생각을 脾에 배속시킨 것이다. 근심은 사소한 일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기운이 움츠러드는 象이 있는데, 이는 가을이 되어 금의 收斂, 肅殺作用에 의해 草木이 시드는 것과 같으므로 근심을 肺氣의 발현이라고 한 것이다. 두려움은 기운이 아래 깊숙히 숨어 버리고 나오지 못하는 象인데, 이는 겨울의 水氣가 陽氣를 沈藏하는 것과 같으므로 腎氣가 발현된 것이라고 한 것이다.

<內經>에서는 또 五行의 相克理論을 활용하여 감정으로써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悲勝怒” “恐勝喜” “怒勝思” “喜勝憂” “思勝恐”이라고 하였는데, 모두가 五行相克의 법칙에 부합된다. 이러한 五行相克을 이용한 감정조절법이 <內經>의 모든 篇에서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감정의 조절을 통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점이나, 또 감정을 이용한 치료에 五行의 相克理論을 도입한 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사고로서, 의학적으로도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內經>은 꿈을 해석하는 데도 五行

42) “腎者, 主蛰封藏之本, 精之處也”

43) “肝者, 罷極之本, 魂之居也”

44) “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者, 倉廩之本, 營之居也, 名曰器, 能化糟粕, 轉味而入出者也”

45) “人有五藏化五氣, 以生喜怒哀憂恐”

理論을 응용하였다. <靈樞·淫邪發夢>의 내용을 보면, 肝氣가 盛하면 성내는 꿈을 꾸고, 肺氣가 盛하면 두려워하거나 울거나 날아 다니는 꿈을 꾸고, 腎氣가 盛하면 허리가 끊어지는 꿈을 꾸며, 厥氣가 心에 침입하면 산에 불이 나는 꿈을 꾸고, 厥氣가 神에 침입하면 물가에 갔다가 물에 빠지는 꿈을 꾸게 된다⁴⁶⁾고 인식하였는데, 이 모든 해석이 五行理論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IV. 結論

지금까지 <內經>에 나타난 독특한 정신관에 대해 논하였고, 나름대로 인간의 정신을 陰陽五行論을 바탕으로 해석해 보았다. 그 결과 <內經>은 인간의 정신을 철저히 陰陽五行論을 근거로 해석하였고, 이를 질병의 발생, 질병의 치료 등 의학 전반에 폭넓게 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꿈을 陰陽五行論에 근거하여 해석한 것이나, 감정을 변화시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정신의학방면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있는 내용으로, 좀더 깊이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46) “肝氣盛, 則夢怒. 肺氣盛, 則夢恐懼, 哭泣, 飛揚. 心氣盛, 則夢善笑, 恐畏. 脾氣盛, 則夢歌樂, 身體重不舉. 腎氣盛, 則夢腰脊兩解不屬”. “厥氣客於心, 則夢見丘山煙火. 客於肺, 則夢飛揚, 見金鐵之奇物. 客於肝, 則夢山林樹木. 客於脾, 則夢見丘陵大澤, 壞屋風雨. 客於腎, 則夢臨淵, 沒居水中.”

參考文獻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3. 丁彰炫, "神에 대한 研究"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2.24.
4. 張介賓, <類經(上,下)>, 大星文化社, 1986
5. <淮南鴻烈解>, 漢文大系20, 富山房發行, 增補版第二刷, 1984, 東京
6. 張基槿·李錫浩 譯, <老子·莊子>, 三省出版社, 1987
7. 가노우 요시미츠 지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기철학분과 옮김, <중국의학과 철학>, 여강출판사, 1992, pp.213 재인용